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후기

홍재혁 행정학과 09학번



매해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돛토리환경대학 학생들은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양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교의 협력은 물론, 양국간의 이해를 넓히고, 정체된 과거가 아닌 역동하는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Tottori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자격 총 평점평균 2.6 이상인 재학생으로, 초급 이상의 일본어 회화능력 소지자
교육내용 하계방학 중 일본 돛토리환경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 방문, 일본학생 국내 답방 시 한국문화 인내 및 체험활동
기간 하계방학 중 3박 4일, 총 2회 참가(국내/국외 활동 포함)
비용 왕복 항공료만 자비 부담, 체험비는 양교에서 지원
학점인정 본교 교양 1학점 인정

일본 → 한국, 3박 4일 간의 한국문화체험이 시작된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참여하게 된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평소 일본에 대해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편이었다. 영화나 대중 매체로 접해본 것이 전부인 나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웃나라-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은 고작 이 정도였다. 그런 내가 일본 단기문화체험에 참가한 이유는 오직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였다. 처음 동기는 막연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일본 공부에 들어갔다. 일본에 대해 바로 알고자 '일본문화기행'이라는 수업도 듣고, 일본어 공부도 하며 준비해나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내 인생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살면서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자매대학인 일본 돛토리환경대학 친구들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그 후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교류팀 이종민 선생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보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프로그램 일정을 짰다.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동선을 고려해 일정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특히 일본 친구들과 1:1 파트너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참여학생들은 각자 기념이 될 만한 선물도 미리 준비했다. 중간중간 청주시청과 학교 스케줄로 인해 초기에 우리가 기획했던 일정과 다르게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하기도 했고,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체력이 조금 달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 뿌듯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첫 만남의 어색함이나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다소 서툴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웃고 알아가는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게 됐다. 기숙사에서 손짓 발짓으로,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한국 → 일본, 돛토리현에서 별처럼 빛나는 꿈을 만나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이미 친분을 다진 터라 처음보다 훨씬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주어진 자유시간에 일본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늦은 밤, 후미카라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후미카는 별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다.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밤, 후미카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며 그 곳을 소개한 뒤, 우리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말했다.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그토록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었다. 모두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간이 유독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순간 무언가 내 심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후미카는 그렇게 한국 친구들에게 가장 멋진 추억을 선물해주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공항에서 일본 친구들과 작별하는 순간은 정말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다시 방문해 그때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번 일본 단기문화체험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가 이후 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이후 자매대학이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생에 있어 참으로 긴 여운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부쩍 늘어 무엇이든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행운처럼 찾아준 일본 단기문화체험을 통해 나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값진 경험이 내게 새로운 꿈에 도전할 용기를 준 것 같다.❶